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고양시의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성은 의원, 부위원장에 양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수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종만·조현숙·정연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박한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양훈·엄성은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및 예치금 등 남북교류 촉진 분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및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등 청년복지 ▲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부지매입비 등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고양새일센터 운영지원 및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일자리 관련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부담금 등이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3조4,566억여 원으로 기정예산 2조9,551억1천2백만 원보다 5,014억여 원이 증액되었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 1인 시위 전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이 9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4개 특례시의회 의장인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4개 특례시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1인 시위에 앞서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위에 나선 이길용 의장은 “특례시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상식

암보다 치명률이 높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급성 심부전’

심부전의 증상은 노화 증상과 비슷해 모르고 있다가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증상이 심한 말기 심부전 진단 후 2년 이내 사망률 확률은 암 사망률보다 높은 80%이다. 심부전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심장에 영향을 주는 수없이 많은 심장질환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해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린다.

출처: 질병관리청

급성 심부전(Acute Heart Failure)이란?

심장의 펌프기능 이상으로 충분한 양의 혈액을 체내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심박출량 50% 미만이면 가벼운 산책도 숨이 차고 피곤하며, 심박출량이 40% 미만이면 앉아서 쉬는 중에도 숨이 찬다. 이는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이나, 노화로 인해 심장 근육이 약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급성 심부전의 예방

심부전은 급성 혹은 만성 여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급성 심부전은 주로 1주일 내 갑자기 발생하거나 악화된 심부전을 의미하는데, 이는 심부전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는다.

심부전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심부전의 전형적인 증상

호흡곤란, 발목부종, 피로감 등 혈액의 산소가 몸 구석구석 세포들에 전달되지 못해 손발이 저리고, 늘 피곤하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친다. 증상 초기에는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할 때만 피곤하지만,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지치게 된다.

* 주요 증상: 호흡곤란, 발목부종, 만성피로, 불면증, 복수 등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 ① 담배는 반드시 끊는다.
- ②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인다.
- ③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 ④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 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 ⑥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 ⑦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 ⑧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 ⑨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간다. 🏥